



남원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공동체 활성화 시민토론회.

# 공동체 활성화사업 '가속도'

### 남원시, 지원센터 설립·조례 입법 추진... 시민토론회도 개최

남원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는 행정, 복지,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지역이 행복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기존 단체의 역량강화와 교육, 생활복

지, 협동조합 등 분야별로 새로운 공동체 사업의 주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남원시는 이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부영5차 APT 관리동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임차인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 공동육아와 업사이클링을 배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설립과 지원조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

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론의 장인 '공동체 활성화, 시민 토론회'를 남원시청 강당에서 열었다.

지난 10일 남원, 꿈꾸는 마을학교'를 개설해 마을 활동가 1기생을 배출한 데 이어, 오는 5월 23일에는 직장인들이와 업사이클링을 배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설립과 지원조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초읽기'

### 크리스찬 복지재단과 협약... 숙박업소 등에 세탁 장비 마련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아심차게 준비한 '임실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임실군은 지난 12일 군수실에서 사회복지법인 크리스찬복지 재단(대표: 노준)과 임실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크리스찬복지 재단은 오는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게 된다.

'임실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적응능력과 직무기능을 향상시키고 자활·자립을 도모코자 지난해 8월 착공해 금년 5월에 준공됐다.

총 사업비 8억9천3백만원을 투입해 541㎡ 규모로 사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을 비롯해 작업실에는 대규모 세탁을 위한 장비가 마련됐다.

올해 도비와 준비를 합쳐 1억9천3백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세탁사업을 운영해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전문 직업 재활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군은 "작업을 통해 꿈을 이루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보호작업장이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의 위해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시, 유공경찰관 표창수여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지난 12일 오전 경찰서장실에서 중요범인(절도) 검거 등 경찰관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사와 경위 최충호는 절도범을 검거한 유공,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정상훈은 청소년 선도·보호 유공으로 각각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신일섭 서장은 "끈질긴 추적수사로 절도범을 검거하고 청소년 선

도·보호에 앞장 서 주민주요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따뜻한 치안활동으로 인정받는 순창경찰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아기 시민증' 발급

### 새 시민이 됨을 축하하는 출산 이벤트 사업 추진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는 2017년도 또 한 번의 출산 축하 이벤트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되는 신규 이벤트 사업은 신생아 탄생을 기념하고 남원시의 새 시민이 됨을 축하하기 위한 '아기 남원시민증' 발급서비스로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기 남원시민증'은 아기 출생 신고 후 1년 이내 신생아에게 발급되는 서비스로 신청서와 아기사진을 출생신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크기와 형태의 카드를 각 가정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급되는 '아기 남원시민증'은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가 기재되고 뒷면에는 아기의 띠, 혈액형, 부모성명, 연락처 및 부모의 바램이 인쇄됨에 따라 아기가 태

어남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선물을 받게 되어 아기탄생의 소중한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하고 큰 축복인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기 남원시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원시에서 2017년도에 새롭게 시행된 출산축하 사업으로는 '시장에게 받는 축하전화', '지역 신문에 신생아 사진과 축하글 게재와 액자보급',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과 지역 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를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 총력

순창군이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 체납과태료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자동차 체납과태료가 7억원을 넘어섰으며 체납액을 분 석한 결과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또는 지연) 위반이 93%를 차지하는 한편 50만원 이상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군은 먼저 자동차 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 이행 시 위반 일자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사전 및 가입(이행) 촉구 안내를 당초 1회에서 3회까지 확대 시행해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자봉센터, 이동봉사 실시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임금순) 전문봉사단 20여명은 지난 12일 인계면 세룡마을 마을회관에서 동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방곡곡 맞춤형 이동전문봉사 활동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활짝 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기원)와 연계해 추진한 이번 봉사활동은 2.5톤 이동빨래방차량으로 두꺼운 겨울이불을 세탁하고 이마유 및 염색, 귀마사, 네일아트, 서랍요법, 발마사지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또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준비해 드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수, 라면, 생필품을 전달하고 떡, 과일, 음료 등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어르신들을 살뜰히 챙겼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안전점검 캠페인 펼쳐

순창군이 최근 전통시장 장날을 맞아 '제253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순창군 공무원과 재해예방 민간예찰단 등 80여명이 참여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군민과 상인들에게 여름철 풍수해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요령 등이 담긴 전단지 및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배부하였으며,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전기기구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요령 등을 홍보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 중 일부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등 짜임새 있는 캠페인을 펼쳤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남원시의 봄 축제에 물들다**

순창남원시청

남원시

- 춘향제 (5월)
- 철쭉제 (4~5월)
- 지리산둘레길 (3~5월)
- 오천변 벚꽃 (4월)
- 오천자전거길 (5월)

여행은 판타지를 만나다